



이승엽

속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22일 오전 11시30분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준결승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본선 풀리그에서 7전 전승을 거둬 1위로 준결승에 오른 대표팀과 4승3패, 4위로 막자를 탄 일본은 준결승에서 반드시 상대를 무너뜨려 아시아 최강으로 공인받고 결승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 일본과 준결승에 김광현을 다시 선발투수로 기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경기에 나와 패기만만한 투구로 1승을 거두며 일본 타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는 만큼 일본전에는 특별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퍼펙트 금메달 향한 '저포본색' 돌아오라

준결승전에서 격돌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투수진이 강한 반면, 타선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선 풀리그 7경기를 끝낸 결과 일본의 팀 평균자책점은 1.60으로 올림픽 참가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피안타 개수(35개)나 실점(14점)이 가장 적고 홈런도 16일 한일전에서 이대호에게 얻어맞은 2점포 말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도 비슷하다. 팀 방아쇠율은 2.81로 8개국 중 5위 수준이지만 한기주(19.31)와 봉준근(8.31)을 제외하면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1~2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방망이는 한국 쪽이 조금 더 세다. 한국 팀 타율은 0.286(241타수 69안타)이고, 일본은 0.242(227타수 55안타)에 불과하다. 일본은 타자 9명 중 1~5번은 그런대로 안타를 쳐내고 있지만 그 뒤가 문제다. 주루 6번을 치는 무라타 슈이치(타율 0.095)를 필두로 주전 포수 겸 7번 타자인 아베



야구

신노스케(0.105), 모리노 마사히코(0.125), 사토 다카히코(0.188), 사토자키 도모야(0.071) 등이 팀 타율을 깎아내리고 있다. 한국은 이가 빠진 게 문제다. 1~3번 타자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4번 이승엽(요미우리)이 타율 0.136(22타수 3안타)의 부진에 빠져있고 5번을 쳐야 할 김동주(두산)는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느라 출전이 뜰날날쪽하다. 이택근(0.188)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22일 준결승전이 1~2점차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회가 왔을 때 누가 타격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경문 감독의 기대가 이승엽과 김동주에게 쏠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승엽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을 때려 내며 거



김동주

포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도 대회 참가 전 무릎부상을 당해 본선 풀리그 5경기에서 10타수 무안타 부진에 빠졌지만 일본전에서 에이스 마쓰자카 다이스케를 상대로 투런포를 터뜨렸고, 3.4위전에서도 0-0이던 8회 1사 1, 2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2타점 결승타를 때려냈다. 김동주도 마찬가지다. 1997년 대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 에이스 우에하라 고지로로부터 4개의 홈런을 빼앗아내는 등 '국제용 거포'의 면모를 갖고 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도 이들이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 오늘 일본과 준결승전

타선 응집력 승패 열쇠

이승엽·김동주 부활포 기대

'태권도 영웅' 문대성 IOC 선수위원 당선

'아테네 영웅'에서 한국 첫 IOC 선수위원으로 21일 베이징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문대성(32·동아대 교수)은 유효 투표수 7천216표 가운데 3천220표를 얻어 총 후보자 29명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번 베이징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가 기절한 류상(중국)은 1천386표밖에 얻지 못해 8위로 떨어졌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32·동아대 교수)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태권도의 중량급 간판 스타였다. 구월중-리라공교-동아대를 졸업한 문대성은 1987년부터 선수 활동을 시작해 1996년 첫 국가대표가 됐다. 이후 1999년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 2002 부산아시아안 게임 해비급을 제패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190cm의 환철한 키와 수려한 외모의 문대성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개최국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드스(그리스)와 결승에서 전광석화 같은 원발 뒤루기로 KO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물론 '아테네의 영웅'으로 떠오르기 전까지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내 선발전에서 문대성은 '태권 황제'로 불렸던 김제경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선발전 3위에 올랐던 김제경과 문대성의 재대결을 결정했고, 결국 문대성은 2-3으로 저 올림픽의 꿈을 접어야 했다. 문대성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상무에 입대해 군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2002년 부산아시아안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활을 알렸다. 결국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에 땀 흘린 한(恨)을 씻어내며 '비운의 스타'라는 꼬리표도 떼어냈다. 문대성은 2004년 말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한 뒤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WTF 집행위원에 지명되는 등 IOC 선수위원 도전을 위한 발판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갔다. 문대성은 잠재한 한국 태권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회 2연패를 노려보겠다는 지난해 6월 깜짝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IOC선수위원 후보에 포함되면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 꿈은 접었고, 마침내 더 큰 꿈을 이뤘다.



로 하고 상무에 입대해 군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2002년 부산아시아안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활을 알렸다. 결국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에 땀 흘린 한(恨)을 씻어내며 '비운의 스타'라는 꼬리표도 떼어냈다. 문대성은 2004년 말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한 뒤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WTF 집행위원에 지명되는 등 IOC 선수위원 도전을 위한 발판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갔다. 문대성은 잠재한 한국 태권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회 2연패를 노려보겠다는 지난해 6월 깜짝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IOC선수위원 후보에 포함되면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 꿈은 접었고, 마침내 더 큰 꿈을 이뤘다.

볼트-육상 100·200m 세계신 2관왕

베이징 슈퍼맨 누굴까

베이징올림픽이 낳은 슈퍼스타 마이클 펠프스(23·미국)와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 간 슈퍼맨 논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단일대회 사상 처음으로 8관왕에 오르고 역대 하계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14개)가 된 수영황제 펠프스와 남자 육상 100m와 200m에서 각각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번뜩이는 볼트'는 단숨에 세계 스포츠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사상 첫'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들을 두고 '누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가'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 언론은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펠프스가 베이징올림픽 첫 주 흥행을 이끌었다면 후반기는 볼트가 바통을 이어 받아 원맨쇼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실은 17일 펠프스가 8관왕을 완성하기 하루 전날 밤 볼트가 100m에서 우승해 슈퍼맨의 공연을 끊기지 않고 연출된 셈이다. 전 세계 스포츠팬들은 정신 없이 올림픽이 주는 희열과 감동을 만끽하고 있다. 일반인의 최대 6배에 달하는 하루 1만2천원을 섭

벤 존슨(캐나다)이 벌였던 세기의 대결 이후 20년 만에 볼트, 아사파 과월(26·자메이카), 타이슨 게이(26·미국) 등 3대 영웅이 빅뱅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100m 결승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 게이가 준결승에서 낙오해 사상 첫 3인방 대결은 다음을 기약했지만 육상팬들은 볼트가 보여준 '번개 질주'에 넋을 잃었다. 이미 결승선 20m 전부터 우승을 예상한 듯 양팔을 펴고 가슴을 두드리는 세리머니가 펼쳐졌고 그러고도 그는 세계신기록(9초69)을 썼다. 20일 밤 200m에서 보여준 역주 또한 강렬했다. 곡선주로에서 이미 경쟁자를 제치고 쪽쪽 치고 나온 그는 직선주로 50m 지점부터는 독주를 거듭, 미국의 육상 영웅 마이클 존슨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세운 19초32를 0.02로 앞당긴 또 하나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메달박스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육상과 수영에서 동시에 등장한 괴물 덕분에 스포츠를 보는 재미는 더욱 늘었다.

펠프스-수영 8관왕 최다관왕 영예

IOC 위원장이 비판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08 베이징올림픽 육상 남자 100m와 200m를 석권한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에 대해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 로게 IOC위원장은 이날 "경기를 끝낸 뒤 우승 세리머니보다는 다른 선수들과 악수도 나누고 어깨에 손도 올려주는 모습이 아쉬웠다"고 코멘트. 볼트는 20일 200m 우승을 차지한 뒤 자메이카 국가를 몸매 두르고 춤을 추거나 TV 카메라를 향해 '내가 넘버 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 일부에서 거부감.

北 응원단 16세 이숙향 화제

○-지난 12일 북한과 독일간 여자축구를 경기에서 북한팀을 응원하기 위해 텐진 올림픽스타디움을 찾은 이숙향(16)양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

올림픽 소식

"볼트, 다른 선수 존중하는 마음 부족"

단발의 이양은 다른 북한 응원단처럼 붉은 상의를 입었지만 분홍색 바지에 이어폰을 끼고 음료를 마시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으며 남한 학생들의 요청에 사진 포즈를 취하는 등 인기 만점. 그러나 일부는 이 동영상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 원래 북측 사람들 접촉시에는 사진 승인 절차가 있다"며 "아무리 올림픽관련 인터뷰라 하더라도 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법 논란도 제기.

마라톤 스프링 운동화 논란

○-24일 오전 8시30분부터 열린 베이징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스프링이 내장된 운동화를 신고 뛰는 선수가 나올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조아오 엔터에(앙골라)와 프랭클린 테노리오(에콰도르)가 남자 마라톤에서 신발 안쪽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프링이 바닥에 내장돼 달릴 때 다리의 충격과 피로를 덜어주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 운동화를 신고 출전한다고 보도해 경기 결과에 따라 시비가 일 전망이다.

英언론 펠프스 연인에 관심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20일 미국 여자 수영스타인 아만다 비어드

(27)와 세계적인 톱모델 릴리 도널슨(21·영국)이 펠프스의 연인으로 거명된다고 보도.

비어드는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200m평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수영스타로 최근 미국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에 누드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으며, 도널슨은 2007년 버버리 모델로 활약하는 등 세계 최고의 모델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정작 펠프스는 이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

금메달선수 이름 판 작명 붐

○-중국에서 올해도 금메달리스트의 성과 이름을 판 작명이 크게 유행할 것으로 전망. 중국 공안부 전국공민신분증번호조사 서비스센터가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다이빙 여제로 불리는 귀징징(郭晶晶) 선수가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2004년에만 귀징징으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가 무려 4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배드민턴 이용대 '베이징 스타' 1위

야후코리아 설문조사

화순출신 이용대(20·삼성전기)가 2008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매혹적인 원크 세리머니로 '누나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이용대(20·삼성전기)가 '2008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새롭게 떠오른 스타'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야후코리아(www.yahoo.co.kr)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08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새롭게 떠오른 스타는?'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7천902명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2천438명이 이용대를 뽑았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가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역도 장미란(24%)과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민호(19%), 자유형 400m 금메달 주인공 박태환(16%) 등이 이용대와 더불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용대는 또 금메달을 확정된 뒤 카메라를 향해 원크를 보내면서 '베이징올림픽에서 가장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준 선수' 설문(5천368명 참가)에서도 53%의 표를 얻어 손가락 세리머니를 펼친 유도 최민호(20%)를 큰 표 차로 제치고 선두에 오르는 등 이번 올림픽이 배출한 최고 스타로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 가장 아쉬운 경기를 뽑는 설문에서는 참가자 3천924명 가운데 1천489명이 표를 던진 양궁 남녀 개인전 1위(38%)에 올랐고,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벨을 놓지 않는 투지를 보여준 이배영의 역도 결선 경기 2위(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남현희의 여자 펜싱 플뢰레 결승(14%)과 왕기춘의 남자 역도 73kg 결승(12%)도 국내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